

# 도내 중기 “12월 경기 전망 둔화”

### SBHI 71.2로 전월보다 1.3p 하락 코로나19 전국 재확산 등이 원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이하 중중)는 16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18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20년 12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1.2로 전월대비 1.3p 하락했다.

이는 지난 8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9월 이후에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전국적 재확산 등에 따라 체감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의 12월 경기전망은 83.3로 전월대비 2.0p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55.8

로 0.7p 하락했다. 건설업은 41.7로 전월대비 8.3p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은 57.6로 0.2p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66.4~66.9)는 0.5p 상승했고, 수출전망(97.1~68.2)과 영업이익(64.8~64.4), 자금사정(65.6~63.6) 전망은 각각 8.9p와 0.4p, 2.0p 하락했다.

12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72.0%), '인건비 상승'(51.7%), '업체간 과당경쟁'(29.7%), '자금조달 곤란'(29.7%), '원자재 가격상승'(28.0%), '인력확보곤란'(17.8%)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새로 나온 다양한 색상의 국산 포인세티아** 지난달 30일 오전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다양한 색상의 국산 '포인세티아' 새 품종을 감상하고 있다. 12월의 꽃, 성탄절의 꽃으로 불리는 '포인세티아'의 국산 품종 점유율은 10여 년 새 10배가량 늘어 올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새만금개발공사

### ISO45001 인증 획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공인 안전기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경영자가 안전·보건정책을 경영방침에 반영해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와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이번 인증으로 공사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개발사업 효율 및 공사 이미지 향상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사장은 "공사 구성원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새만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 파티마신협 '어부바 멘토링' 종료**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양춘제)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꽃밭정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은화)와 진행한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전국의 신협과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결연을 통해 신협 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멘토가 돼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전주파티마신협은 올해 7월 센터와 '신협 어부바 멘토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8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주파티마신협 지원 3명이 멘토로 활동했다.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문화 체험을 위한 '가족공예'와 '전통요리 체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한 '클라이밍체험(원주 놀토피아)' ▲아동들의 건전한 금융가치관 확립을 위한 '경제교육'과 '달란트시장', '전통시장체험(은누리상품관)' 등으로 진행됐다.

양춘제 이사장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인간중심, 조합원 중심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신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경제 주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전주파티마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 복지서비스 향상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 시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시행한다.

그동안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한단계 더 나아가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정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그동안 부금내 대출로 연 2.9%의 이율(분기별 변동금리)이 적용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오늘부터는 의료 및 재해대출을 포함해 총 3가지의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방역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의료·재해대출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또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란 우산의 '共濟' 목적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교육사업 등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 및 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방역 철저히

###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 남원 거점소독시설 방문 방제단 등에 격려품 전달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정읍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된 가운데 추가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지난 29일 갖고 30일 남원축협이 운영중인 거점 소독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농협 남원시지부(시지부장 박노현)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이 함께 한 이날 현장방문에서 박 본부장은 축산차량 및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현장에 전달된 격려품은 전북농협이 AI방역 최 일선에 근무하는 공동방제단 및 축협거점소독시설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총 20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농협은 지난 주말에도 전 시·군의 공동방제단을 총동원해 가금농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정읍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된 가운데 추가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지난 29일 갖고 30일 남원축협이 운영중인 거점 소독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가 및 철새도래지, 도로, 하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고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살포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을 쓰고 있다.

박성일 본부장은 "AI 확산방지 및 종

식을 위해 차단방역 등 방역활동에 힘써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축질병을 하루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군산제일신용협동조합과 한국유리공업(주) 군산공장은 지난달 24일 한국유리공업(주) 군산공장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군산 경제위기 극복 '앞장'

### 군산제일신협, 한국유리공업 군산공장과 상생 협약

군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박창길)과 한국유리공업(주) 군산공장(공장장 이강훈)은 지난달 24일 한국유리공업(주) 군산공장에서 '군산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군산제일신협의 박창길 이사장, 차장근 이사, 장은식 이사, 배창교 이사, 김종문 이사, 백종길 감사, 이동식 전무가 참석했으며, 한국유리공업(주) 군산공장에서는 이강훈 공장장, 강신보 이사, 오성욱 이사, 문기동 이사, 유병호 이사, 박용 이사, 이종화 상무(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호혜적이고 있는 물질·인적자원의 지원 협력을 바탕으로 잠재된 군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상호지원을 하기로 했다.

군산제일신협은 이번 협약을 계

기로 한국유리공업(주) 군산공장 및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특관 예금을 제공해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산제일신협 박창길 이사장은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 발전하여 잠재된 군산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찬다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유리공업(주) 군산공장 이강훈 공장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협력사 등 모든 임직원이 군산제일신협과 함께 군산지역 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신협 운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제일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은 매년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군산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나눔 봉사나 난방비 지원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안내문 '이젠 네이버로도 확인 가능'

### 공단,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이달 중순부터 홈페이지서 인증 통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네이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문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KT 모바일 통지'와 '카카오 인증'을 활용해 25종의 국민연금 통지서·안내문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제공해왔다.

'국민연금 네이버 모바일 전자문서'는 공단이 고객에게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면, 네이버 앱 내 전자문서 메뉴에서 문서수신 등의 및 본인인증 후 열람이 가능하다.

공단이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올해 10월부터 2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발송 가능한 채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에게 국민연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3년간 총 약 11억2,000만 원의 우편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그간 기존 종이 기반의 우편에서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해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종이 없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공단은 네이버 전자문서 확대와 함께 '채널 연계발송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문서 도달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 인증', 'KT 모바일 통지' 등



모바일 채널별 단계를 설정해 두고, 고객이 마감 기한 내 전자문서 미열람 시 다음 단계의 모바일 채널로 자동 연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12월 중순부터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을 통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앞당겨진 언택트 시대에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바일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고객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